



National
Carer
Strategy

토론 보고서

국가 간병인 전략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목차

원주민 인정 의례	3
국가 간병인 전략 자문 위원회(National Carer Strategy Advisory Committee)	3
서문	4
언어에 대한 성명	6
공청회 과정	7
본 토론 자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7
도움 및 지원	8
공청회는 왜 필요한가?	9
왜 공동 책임인가요?	9
섹션 1. 서론	10
국가 간병인 전략(National Carer Strategy)의 목적	10
간병인에 대한 국가 전략 개정의 필요성	10
토론 보고서	12
범위 및 주요 고려 사항	12
자료 수집	12
다양성 존중	13
청년 간병인과 고령 간병인	13
원주민 간병인	13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간병인	14
정부 정책 조정과 협업	14
섹션 2. 국가 간병인 전략 개정의 필요성	15
이미 알고 있는 사항	15
웰빙	15
서비스 이용	16
원주민 간병인	16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CALD)의 간병인	16
청년 간병인	16
섹션 3: 여러분의 견해	18
다음 단계	18
비전 선언문	18
전략의 원칙	18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돌봄 역할은 어떤 형태입니까?	18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19
휴식	19

고용 및 교육	20
우선순위	20
동료 지원	20
간병인들의 다양성에 대한 생각.....	21
지원금	22
기타 서비스	22
귀하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23
참고문헌	24

원주민 인정 의례

호주 정부는 호주 전역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의 땅과 바다, 문화 및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원로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가 간병인 전략 자문 위원회(National Carer Strategy Advisory Committee)

국가 간병인 전략 자문 위원회가 전략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돌봄 제공자들과 관련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공개적인 관심 표현(EOI) 절차를 통해 선발되었으며, 사회서비스부 아만다 리시워스 장관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전략의 범위, 맥락, 공청회 방식 및 주제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개인적 및 전문적 경험을 활용하여 호주의 무급 간병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과 어려움을 새 전략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ational Carer Strategy Advisory Committee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ustralian Government \(dss.gov.au\)](https://www.dss.gov.au/national-carer-strategy-advisory-committee)를 참조하십시오.

서문

2024년 4월, 리시워스 장관은 호주 정부와 함께 국가 간병인 전략을 개발할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간병인 자문 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모든 돌봄 제공자의 관점, 시각, 집단적 경험 및 열망이 최종 전략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돌봄 제공자들과 돌봄 서비스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부터 노부모까지 다양한 대상자를 돌보는 간병인들, 청년 간병인, 원주민 간병인, 이민자 간병인 등 전국의 다양한 간병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지명된 위원들은 호주 전역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복합적이며, 특수한 어려움들에 대해 조언, 대표 및 옹호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새 전략은 돌봄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간병인들은 물론 돌봄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간병인 개인의 개발, 경력, 교육, 재정, 신체적, 정신적 및 문화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간병인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돌봄은 우리 사회의 독특하고 필수적인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가려지고, 인정받지 못하며,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돌봄의 역할은 다양한 개인 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경험입니다. 돌봄 수혜자의 삶에 기여하는 간병인의 중요한 역할을 깊이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지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이 제공하는 기여와 추가적인 무급 돌봄 및 지원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병인들의 기여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유급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호주 보건 및 사회 돌봄 시스템에 가해지는 수요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간병인으로서, 저희는 모든 간병인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여정은 독특하고, 복잡하며, 때론 벅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돌봄은 종종 드러내지 않고 삶의 일부분으로 꾸준히 회복의 힘을 발휘해야 하는 헌신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역할로 조용히 공동체의 본질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약 300만 명의 무급 간병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듣기 원합니다. 돌봄의 여정에 어느 단계에 있으시든지, 지금 막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고충들, 여러분의 필요 등이 새 전략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본 토론 자료와 전략 개발을 둘러싼 공청회 전략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모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여러분의 플랫폼입니다. 모든 간병인이 인정받고, 존중되며, 사회와 돌봄의 역할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대국민 대화에 기여해 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모든 간병인의 역할이 인정받고 가치 있게 지원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Meredith Coote, Co-Chair



Andrew Whitecross, Co-Chair

언어에 대한 성명

본 문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간병인(carer)'과 '돌봄의 역할(caring role)'이라는 용어는 장애, 신체적 질병, 정신 질환, 혹은 나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급으로 돌봄, 지원 및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과 그들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돌봄(caring)'과 '돌봄 역할'은 여러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간병인)은 친구, 이웃, 친척,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Carer Recognition Act 2010\(간병인 인정법\)](#)에서 정의하는 '간병인'이란, 장애, 의학적 상태(말기 또는 만성 질환 포함), 정신 질환 또는 연로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돌봄, 지원 및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료 돌봄 서비스는 본 전략 및 토론 자료의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간병인(Formal carer)'은 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자원봉사의 일환, 또는 유급 간병 서비스나 교육, 훈련의 일환으로 돌봄, 지원 및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모든 간병인이 자신을 '간병인'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돌봄의 역할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돌보는 대상자와의 관계와 친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나타내고, 자신의 정체성과 결부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 자신이 제공하는 지원이 사실 그저 관계에서 기인한 책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개최되었던 공청회의 일부 참석자들은 '간병인'이라는 용어가 사람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돌봄 수혜자에게는 해당 용어가 거만하게 느껴질 수 있고, 대상자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단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돌봄의 책임이 자신의 본업에 영향을 미치고, 본인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제한을 받으며,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간병인'라는 개념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문화권에서는, 특히 원주민이나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CALD) 커뮤니티에서는 '간병인'이라는 용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수용 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토론 문서에서 사용되는 '간병인'이라는 용어는 간병업을 직업으로 하는 공식 간병인이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해 주십시오. 본 문서에서 사용하는 '간병인'이란, 질병, 허약성, 장애, 정신 건강 문제 또는 중독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파트너/친구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아동이나 어른 모두 포함됩니다.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본 문서에서 언급되는 간병인이라는 용어는 성인 간병인과 청년 간병인(미성년 포함) 모두를 포함합니다.

참고적으로 일상적인 육아를 수행하는 사람은 본 토론 자료와 전략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부모, 또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친족, 조부모, 기타 위탁 양육 관계로 인해 일반적인 아동 양육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단, 아동이 장애나 질병 또는 정신 건강 문제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이러한 양육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조부모, 위탁 및 친족 돌봄 제공자 상담원(Grandparent, Foster and Kinship Carer Adviser) 전화 1800 245 965 번으로 문의하셔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기타 관련 자료는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 주세요.
귀하는 '간병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선호하는 다른 명칭이 있습니까?



돌봄 역할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주요 돌봄 제공자, 혹은
이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주요 돌봄 제공자
(primary carer)'란, 일상 활동을 위해 돌봄 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무급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돌봄 제공자'라는 개념이 도움이 됩니까?

공청회 과정

본 토론 자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병인에 대한 새로운 국가 전략(이하 '전략')에 대한 공청회 및 국민 참여의 일환으로 본 정부는 돌봄 제공자와
이해 관계자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의견을 듣기 위해 본 토론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돌봄 제공자,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는 간병인의 필요에
부응하고 호주의 모든 무급 돌봄 제공자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본 자료는
사회서비스부가 돌봄 제공자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문제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관련 문제나 해결 방법을 다루려는 의도보다는, 여러분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유로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을 장려하는 용도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토론 자료에 응답하여 참여하는 것은 국가 정책 마련에 동참하여 돌봄 제공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고 돌봄
제공자가 국가 간병인 전략 개발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공청회 참여 방법은 본 자료 섹션 3에 있는 여러가지 질문들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들은 단지 여러분이 해당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병으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온라인 설문지를
개발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셔도 되고, 가장 중요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질문에만 답하셔도 됩니다. 설문지는
[국가 간병인 전략 | engage.dss.gov.au](https://engage.dss.gov.au)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 토론 자료는 정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호주 사회가 돌봄 제공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모든 돌봄
제공자를 위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방 정부가
이해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출 마감일: 2024년 9월 13일 오후 11:59 AEST.

DSS Engage 를 통한 온라인 서면 제출 방법:

- DSS Engage 에서 [국가 간병인 전략 | engage.dss.gov.au](http://engage.dss.gov.au) 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면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주제나 답하고자 하는 질문이 속해있는 항목의 주제명을 기입해 주세요.
-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가장 관심 있는 질문에만 답하셔도 됩니다.
- 조직을 대표하는 경우는, 귀하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 연구나 데이터 및 증거 등을 함께 제공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실 때 개인 식별이 되지 않도록 비식별화하십시오.
- 정부가 간병인에 대한 국가 전략에 대한 공청회 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 제출을 할 때, 제출물을 부서 웹사이트에 실명으로 게시할지 익명으로 할지 선택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개인 정보 정책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ustralian Government \(dss.gov.au\)](http://dss.gov.au) 의 개인정보 보호 공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NationalCarerStrategy@dss.gov.au

우편: National Carer Strategy GPO Box 9820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anberra ACT 2601

문의: 모든 문의 사항은 NationalCarerStrategy@dss.gov.au 로 제출

구독신청: 본 공청회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구독하기 원하면 engage.dss.gov.au 로 신청하십시오.

도움 및 지원

본 자료는 독자에게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본 문서에는 호주의 간병인들이 겪는 경험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고 나서 어려운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Carer Gateway(간병인 지원 서비스)

- 전화 지원 및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전화 1800 422 737 로 문의하십시오.
- 웹사이트: Carer Gateway

Beyond Blue Support Service(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

- 전화 1300 224 636, 주 7 일, 24 시간
- 온라인 채팅 오후 3 시부터 자정 12 시까지 AEST, 주 7 일
- 무료 단기 상담, 조언 및 서비스 추천을 원하시면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 Beyond Blue Support Service

Lifeline Crisis Support(위기 전화 상담)

- 본 서비스는 버겁거나 대처가 어려운 상황, 혹은 자살을 생각하실 경우 전화 상담을 지원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전화 13 11 14 번으로 위기 지원 상담사와 통화하세요. 주 7 일 24 시간 운영됩니다.
- 24/7 문자 지원 요청은 전화 0477 13 11 14
- 24/7 온라인 채팅
- 웹사이트: Lifeline Crisis Support

1800RESPECT

- 성폭행이나 가정 폭력 또는 학대의 피해에 대한 지원 요청
- 전화 1800 737 732, 주 7 일, 24 시간

- 주 7 일, 24 시간 온라인 채팅
- 웹사이트: [1800RESPECT](https://www.1800respect.org.au)

13YARN(원주민 위기 상담 전화)

- 원주민 문화를 이해하는 위기 지원 상담
- 전화 13 92 76, 주 7 일, 24 시간,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위기 지원 상담자와 상담하십시오.
- 웹사이트: [13YARN](https://www.13yarn.org.au)

QLife

- QLife 는 호주의 성소수자가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LGBTQ+ 동료 지원 및 추천 서비스입니다.
- 전화 1800 184 527(주 7 일, 오후 3 시부터 자정까지), 또는 웹사이트 [QLife - Support and Referrals](https://www.qlife.org.au) 방문

공청회는 왜 필요한가?

돌봄 제공자가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다양하며 종종 간병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종종 고립감, 차별, 그리고 가족 역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간병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감정적 웰빙, 신체 건강, 자율성 및 정체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략은 호주 전역의 돌봄 제공자들과 협의하여 개발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부는 대도시, 지역, 농촌 및 외딴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는 실제 간병의 경험이 있는 돌봄 제공자, 관련 기관 대표 및 청년 간병인, 원주민 및 CALD 커뮤니티 등 다양한 그룹의 간병인들을 포함합니다. 공청회에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 노인, 재향 군인 및 장애인 등 독특한 요구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을 포함시켜 그들의 고충을 더 잘 이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왜 공동 책임인가요?

자금 지원, 서비스 제공 및/또는 규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연방,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왕립 위원회, 조사, 설문 조사 및 전문가 회의와 같은 다양한 공청 기회를 통해, 복잡한 정부 절차로 인해 간병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서비스 통합의 개선과 정부 간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간병인들 또한 돌보는 역할에서 겪는 문제들, 본인들의 웰빙 및 공동체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에서 오는 좌절과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국가 간병인 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개혁들과의 교차점을 인정하고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과 유연한 근무 조건 조정을 통해 간병인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등 목적에 맞는 협력 방안을 강구해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섹션 1. 서론

국가 간병인 전략(National Carer Strategy)의 목적

본 전략을 통해 호주의 간병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연방 정부가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본 전략은 지도(roadmap)의 역할을 할 것이며, 호주가 간병인들을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새 전략에서는 간병인의 고유한 상황과 현재 지원 등을 확인하면서 간병인의 다양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부서 간의 간소화 및 조정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호주의 무급 간병인의 웰빙, 교육, 건강(정신 건강 포함) 및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간병인에 대한 국가 전략 개정의 필요성

이전의 국가 간병인 전략은 2011년에 시작되어 2010-2020 국가 장애 전략(National Disability Strategy), Carer Recognition Act 2010(간병인 인식법)과 함께 호주 정부의 국가 간병인 인식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 간병인 지원 서비스 계획(일명 Carer Gateway)이 2015년에 시작되면서 기존의 전략이 하고 있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전략이 발표된 이래로, 국가 장애 보험 제도의 시행, 호주의 장애 전략 2021-2031, 노인 요양시설 개혁 등 주요 지원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대상자 중심의 계획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유급 지원 서비스와 이를 이용하는 대상자들, 그들의 가족, 친구 및 간병인 간에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 간병인은
2020년과 2030년 사이에
23%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통계 예측에 따르면 향후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무급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게 될 중증 또는 심각한 장애 인구 수의 변화에 기반한 예측입니다(Deloitte, 2020). 호주 노인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ABS 2022-base---2071).

이러한 무급 간병인 수요의 증가와 함께, 종전에 75% 이상의 무급 돌봄을 제공해 오던 여성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ABS, 2024). 이러한 요인들은 무급 돌봄과 유급 노동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간병인의 능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간병인의 경제적 참여에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 개정을 통해 연방 관련 기관 전반에 걸친 간병인에 대한 국가 정책 조정을 위한 틀을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에 간병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토론 보고서

간병인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호주 연방 정부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전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간병인들의 다양한 입장과 개별적인 필요,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필요, 특정 지리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및 간병인들이 지원 서비스 체제를 어떻게 탐색 이용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림 1: 호주 간병인들의 다양성

호주 간병인의 다양성

간병인의 상황, 경험 및 지원은 여러 차원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가 간병인 전략은 호주의 간병인과 돌봄 관계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응할 것입니다



범위 및 주요 고려 사항

자료 수집

자료는 호주 국가 인구 및 주택 센서스를 포함한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며, 호주 통계청(ABS)이 실시한 장애, 노화 및 간병인 조사(SDAC)에서도 수집됩니다.

가장 최근의 SDAC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는 300 만 명의 무급 간병인이 있으며, 이 중 약 120 만 명(전체 호주인의 4.5%)이 주요 돌봄 제공자로 간주됩니다(ABS, 2022). 이는 2018 년 3.5% 또는 861,600 명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주요 돌봄 제공자 중 43.8%는 본인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DAC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주요 돌봄 제공자의 67.7%가 여성입니다.

호주보건복지연구소는 ABS 인구 및 주택 센서스(2021)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 세 이상의 호주 원주민 중 76,600 명(15%)이 간병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연방 간병인 지원 체제인 Carer Gateway 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병인의 다양성이 부각되었습니다.

2023 년 6 월 30 일 기준, 호주의 간병인 중 163,403 명(6%)이 Carer Gateway 에 등록되었습니다(2023 년 6 월 30 일 Data Exchange 자료). Carer Gateway 에 등록된 간병인 총 163,403 명 중,

- 122,233 명의 간병인(또는 75 퍼센트)은 여성
- 9,013 명의 간병인(또는 6 퍼센트)은 25 세 미만
- 6,733 명의 간병인(또는 4 퍼센트)은 원주민
- 9,583 명의 간병인(또는 6 퍼센트)은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CALD)들로 확인

다양성 존중

새롭게 개정되는 전략에서는 호주 간병인들의 문화, 종교, 언어, 능력, 지역 및 가족 구성면에서의 다양성을 반영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LGBTIQ+ 커뮤니티도 포함됩니다.

청년 간병인과 고령 간병인

간병인들이 다양한 연령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편의상 25 세 미만의 청년 또는 미성년자는 '청년 간병인', 65 세 이상은 '고령 간병인'으로 정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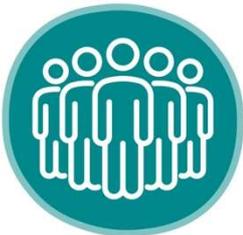
392,900명
이상의
청년 간병인



758,000명
이상의
고령 간병인

2022 년 기준, 호주에는 300 만 명의 무급 간병인이 있으며, 그 중 392,900 명 이상이 청년 간병인, 758,000 명 이상이 고령 간병인입니다(ABS, 2022). 공청회를 통해 청년 간병인과 노년 간병인 모두의 필요와 독특성을 더 잘 이해하여 개정되는 전략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 간병인



76,568명
원주민들은 돌봄 인구의 약 3.1%를 차지합니다.

2021 년 ABS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 따르면 원주민은 돌봄 인구의 약 3.1%인 76,568 명을 차지합니다. 원주민은 종종 스스로가 '간병인'이라는 정체성을 이해하고 돌봄 역할 수행 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면에 있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FPDN, 2023). 정부는 원주민 간병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기 원합니다.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간병인

호주 통계청(2021)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집에서 사용하는 주요 언어가 영어가 아닌' 간병인의 비율은 약 20.4%(캔버라 대학이 인용한 2021 년 인구 조사)이며, 25%-30%는 CALD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 개정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부 정책 조정과 협업

국가 간병인 전략 자문 위원회는 전략 개정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호주 전역에서 공청회를 시작하면서 간병인 환경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정부가 희망하는 격차 해소와 적절한 정책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간병인들이 흔히 복잡한 정부 체제 속에서 여러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탐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간병인들은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 전략을 통해 이러한 중요한 지원 메커니즘 전반에 대한 돌봄 제공자의 경험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 관련 기관 전반에 걸친 정책의 더 나은 조정과, 효과적인 정보 공유, 정부 간의 의사소통 향상, 연방 기관 간의 효율적인 정책 시행 및/또는 가능한 경우 체제에서 불필요한 단계 제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력이 동반되어야 의미있는 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새 전략은 격차 해소(Closing the Gap),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방치 및 착취에 관한 왕립 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Violence,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성 평등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to Achieve Gender Equality), 국가 자폐증 전략(National Autism Strategy) 및 총리실과 내각부에서 주도하는 돌봄 및 지원 경제 작업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 이니셔티브를 통해 배운 교훈들도 참고할 것입니다.

새 전략은 국가 장애 보험 기관(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재향 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및 보건 및 노인 요양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등 다양한 연방 관련 기관 전반에 걸쳐 간병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인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서비스 체제의 변경 사항이 귀하의 간병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돌봄 제공자가 정부 체제의 절차나 제공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섹션 2. 국가 간병인 전략 개정의 필요성

이미 알고 있는 사항

호주 전역의 돌봄 제공자들이 최근 다양한 공청회 기회를 통해 그들이 돌봄 역할에서 겪는 도전, 웰빙 및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는 왕립위원회, 조사, 설문 조사 및 전문가 회의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간병인들이 이미 우리에게 말해준 것들을 바탕으로 간병인, 돌보는 대상자,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위한 개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집한 돌봄 제공자와 이해 관계자의 입장:

- 무급 간병인의 요구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 돌봄 수혜자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급 간병인과 유급 간병인 간의 협업이 더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간병인은 돌봄을 받는 대상자의 필요와 선호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장차이를 인정받기 원합니다.
- 원주민 간병인이나 기타 다양한 배경의 공동체 일원인 경우 공동체 특성상 독특한 경험과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적으로 안전하고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 프로그램 및 지원의 개발에 있어 그들의 고유한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원주민 간병인이나 해당 공동체의 다양한 관점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지역화된 돌봄 모델과 서비스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신체 및 정신 건강, 재정적 웰빙 및 임시 요양 서비스 등 간병인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 장벽의 단순화 및 간소화를 통해 간병인이 돌봄의 역할을 수행할 때 체제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웰빙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간병인들은 종종 '본인의 웰빙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다양하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를 '돌봄의 부담(burden of caring)'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실제로 본인의 고용, 교육, 사교 및 자기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Carer Wellbeing Survey, 2022).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들이 본인의 건강과 웰빙보다는 돌보는 사람들의 웰빙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간병인은 본인의 정기적인 건강 검진,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사교 활동, 친교 및 지원(2023 년 간병인의 웰빙 설문조사)과 같은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자기 관리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의 복지와 안전은 호주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많은 요인이 간병인의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악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돌보는 사람이나 돌봄을 받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간병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돌봄이 무엇인지, 무급 간병인이 누구일 수 있는지, 그리고 무급 간병인이 제공하는 귀중한 기여를 지원하고 인정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나 지원이 제공 가능한지 등에 대해 돌봄 제공자와 지역 사회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만성 질환자 및 노인들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무급 간병인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무급 간병인들의 역할과 공헌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무시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간병인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간병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체 돌봄 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입니다.

서비스 이용

Carer Wellbeing Survey 2023 에서 간병인이 교육 및 훈련, 사회적 지원 그룹 및 대체 요양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러 유형의 지원이 간병인에게 강력하고 일관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임시 요양 서비스, 유연한 근무 조건, 심리 치료, 교육 및 훈련 개입, 지지 그룹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간병인들은 행정 절차를 포함하여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고 탐색하는 데 있어 여러가지 장벽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장벽과 영향은 집단의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예로는, 시골 및 외진 지역의 간병인,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대상자를 돌보는 간병인, 교통, 접근 및 언어 장벽이 있는 간병인 등이 있습니다(간병인 웰빙 설문조사, 2022).

이와 더불어, 최근 하원에서 사회 정책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상임위원회에서 [무급 간병인의 인식, 가치 부여 및 지원\(aph.gov.au\)](#) (2024)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무급 간병인이 직면한 문제와 개혁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소수 집단에 대한 집중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22 개의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소수 집단에는 원주민 간병인,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간병인 및 청년 간병인 등이 포함됩니다.

원주민 간병인

호주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는 *ABS 의 2021 인구 주택 센서스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2023)*.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15 세 이상 원주민 가운데 15%가 무급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민들은 비원주민 호주인에 비해 무급 돌봄에 참여할 가능성이 1.3 배 더 높으며, 더 어린 나이에 돌봄을 시작합니다(AIHW, 2023). 원주민 간병인들은 개인 웰빙의 저하, 재정적 스트레스 및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외에도 고유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Carer Wellbeing Survey, 2023*). 예를 들어, 원주민 간병인들의 교육 격차는 특히 외딴 지역 및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지며(LoGiudice et al., 2021), 지원을 필요로 하는 조기 발병 및 장애의 유병률이 더 높았습니다(Hill et al., 2012).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CALD)의 간병인

공청회 등을 통해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돌봄 제공자들은 CALD 간병인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체에서는 돌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직면하고 있는 추가적인 장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식 제고와 표적 지원을 통해 관심을 새로이 집중해서 이러한 장벽을 줄여 나간다면, CALD 간병인의 정신 건강 증진과 예방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웰빙과 결과를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간병인

청년 간병인은 돌봄 제공자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청년 간병인들은 돌봄의 역할이 본인의 웰빙,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합니다(Mohanty and Niyonsenga, 2021). 따라서 청년 무급 간병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더 잘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사회 내에서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계에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청년 간병인들의 고충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LGBTQIA+(성소수자) 간병인

호주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LGBTQIA+ (성소수자) 간병인들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LGBTQIA+ 간병인들은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의 예로는, 더 심화된 사회적 고립, 차별(특히 지원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소외를 당하는 경우), 성소수자 또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인식 부족(Mental Health Carers NSW), 웰빙의 지속적 감소(Carer Wellbeing Survey, 2023)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LGBTQIA+ 간병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장벽들은 해당 그룹이 주도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포용적인 지원과, LGBTQIA+ 간병인들의 고유한 경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인식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섹션 3: 여러분의 견해

다음 단계

다가오는 지역사회 및 관련 분야 공청회를 통해, 정부는 간병인이 겪는 주요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간병인과 돌봄 대상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귀하가 응답하도록 초대합니다. 전략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일부 또는 전부 응답하거나 다른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전략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귀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토론 자료는 대국민 공청 과정의 일부입니다. 사회서비스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공청회 과정 전반에 걸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국가 간병인 전략의 구조에 대한 제안

전략의 잠정적인 구조는 지침이 되는 원칙, 국가 비전, 원하는 결과, 정책 우선순위 및 결과와 우선 개혁 영역에 대한 미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됩니다.

비전 선언문

새로운 국가 간병인 전략에 대한 비전 선언문은 호주 전역의 다양한 배경과 지역에서 실제 돌봄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간병인들이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전 선언문은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포부와 원하는 결과를 설정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간병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돌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인정받고, 존중받고, 권한을 부여받는 호주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략의 원칙

정책을 안내하고 전략 하에 제안하는 미래 구현을 위한 원칙 세트가 개발될 것입니다. 지침 원칙에는 간병인 중심, 간병인의 의견 경청, 간병인의 다양성 포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체제 전반에 걸쳐,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다양한 간병인의 필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전략을 이끄는 원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전략의 비전, 결과 또는 우선순위 영역의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적 또는 단기적 조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1. 국가 간병인 전략에 어떤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돌봄 역할은 어떤 형태입니까?

간병인은 식사 준비, 개인 위생, 이동 지원, 교통, 의사 결정 지원, 약물 복용 지원, 재정 관리, 통증 관리, 감정 관리 및 위기 관리와 같은 일상 활동을 지원하고 돕습니다. 계속해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씩만 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지만 은행 업무나, 교통, 쇼핑, 집안일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도 있습니다. 상황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돌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훈련이나 기술 개발과 같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

2. 귀하가 맡고 있는 돌봄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며 어떤 업무가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a. 주요 간병인이십니까? 친척과 같이 이차적 지원을 제공해 줄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3. 돌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원 및/또는 개발하고 싶은 기술이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무급 돌봄 제공자의 필요는 다양하며 종종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일부 간병인은 간병을 제공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상황별로 간병이 필요한 빈도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여럿일 수도 있고, 매일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면, 온라인 및 전화 서비스를 통해 호주 전역에서 무급 간병인에게 제공됩니다. 청소, 정원 가꾸기, 교통 및 임시 요양 서비스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및 서비스가 직접 제공될 수도 있고, 다른 조직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4. 귀하의 돌봄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a. 돌봄 지원을 찾고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b. 과거에 돌봄 지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5.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어떤 점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휴식

'Respite' 또는 'respite care(임시 요양 서비스)'는 무급 간병인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대신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식은 일상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돌볼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임시 요양 서비스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 요양 서비스업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하룻밤 등 더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돌볼 수 없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간병인이 아프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 긴급하게 단기 요양 서비스를 짧은 시간 내에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써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임시 요양 서비스는 귀하가 돌보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2023 년 간병인 웰빙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시 요양 서비스는 간병인의 소진, 스트레스 및 피로를 줄이고 간병인이 필수적인 자기 관리 활동 및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준다고 합니다. 교육과 사회 활동이 필요한 청년 간병인과 같이 독특하거나 다양한 필요를 가진 일부 간병인에게 적절한 유료 서비스 이용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Respite(임시 요양 서비스)'이라는 용어가 모든 사람에게 쉽게 수용되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더 알고 싶습니다.

질문:

6. 복잡한 돌봄의 요구를 가진 대상자인 경우 쉽게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망설이게 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차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7. 귀하가 생각하는 적절한 대체 돌봄 조치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 및 교육

돌봄의 역할로 인해 간병인은 본인의 고용, 교육, 사회 생활 및 자기 관리 등에 시간을 할애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Carer Wellbeing Survey, 2022). 돌봄 책임과 교육 및 고용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 책임이 공존할 때 직장에서의 복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돌봄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돌봄의 요구 사항이 변경되어 간병인이 직장이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는 청년 간병인이 돌봄 의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종종 결석, 학업 성적

저하 및 고등 교육 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는 또한 학업 및 근무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였을 경우 간병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훈련 및 교육 부문의 적절한 중재와 지원은 간병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킵니다.

[Carer-Inclusive Workplace Initiative\(간병인의 역할을 배려하는 직장 만들기\)](#)는 간병인의 귀중한 기여를 인정하고, 지역 사회에서 무급 간병인들을 위한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귀하가 경험했던 유익한 지원과 서비스에 대해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질문:

8. 귀하의 직장이나 교육 기관에서 실행하면 유익할 간병인 배려 관행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9. 귀하의 교육 환경이나 직장에서 경험한 유익한 지원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 간병인이 직장이나 교육을 계속 병행하거나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선순위

무급으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인간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책임, 생활의 변화, 간병을 통해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필요는 스트레스, 피로, 심지어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를 돌보거나,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돌보아야 하는 역할 역전이 발생했을 경우, 관계의 본질까지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돌봄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개인으로서 돌봄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질문:

11. 간병인으로써 귀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세가지는 무엇입니까?
12. 현재 간병인과 돌보는 대상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료 지원

동료 지원 그룹은 다른 간병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료 간 지원은 귀중한 정보, 공감할 수 있는 경험과 조언, 동반자 및 친구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료 지원을 통해 특정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구현 및 유지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관리 전략, 정신 건강 문제 대처 전략 등이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처한 상황의 정서적 복잡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이용 가능한 유용한 서비스 탐색에도 귀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새로운 사람들, 그룹 및 서비스와 연결하는데도 동료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13. 동료 지원 그룹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유익하다고 느꼈습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없었나요?

간병인들의 다양성에 대한 생각

일부 그룹이나 사람들은 정부 절차나 서비스에 참여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다른 간병인들은 모르는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 장벽, 낮은 디지털 문해력, 문화적 민감성, 맞춤형 서비스의 가용성 또는 지역의 격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룹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원주민 간병인
- 다문화, 이민자 및 난민 등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간병인
- 지역, 농촌 및 외딴 지역의 간병인
- LGBTQIA+ 커뮤니티에 속하는 간병인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간병인
- 청년 간병인
- 고령 간병인

질문:

14. 새로 개정되는 전략에 귀하의 경험이 어떻게 반영되기 원하십니까?
15. 다양한 배경의 일원이라면, 귀하의 커뮤니티가 정부 지원 및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및/또는 정보 수신에 있어 격차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16. 귀하가 속한 커뮤니티 내 간병인을 돕거나 개선할 수 있는 우선 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원금

호주 정부는 돌봄의 의무로 유급 근로가 어려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간병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간병 지원금(Carer Payment)과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은 장애, 질병 또는 노령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개인 가정에서 돌보는 간병인에게 지원하는 격주 사회 보장 보조금입니다. 돌봄 지원금을 포함한 연금은 호주 사회 보장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최고 법정 비율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생활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매년 3 월과 9 월에 새로이 책정됩니다.

2024-25 예산에서 호주 정부는 5 년 동안 1,860 만 달러를 투자하여 돌봄 제공자가 돌봄 역할에 맞춰 더 유연하게 근로 조건을 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종전의 주당 25 시간 규칙을 변경하여 4 주 정산 기간 동안 최대 100 시간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25 시간 경제활동 참여 규칙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학업 및 봉사 활동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여 노동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현재 약 31,000 명의 돌봄 수당 수령자가 일하고 있으며, 유연하게 재조정된 규칙으로 인해 약 25,000 명의 여성을 포함한 더 많은 간병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서비스부는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돌봄 지원금 수령 심사 절차에 있어 현대적 적합성과 적절성을 고려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는 이해 관계자와의 토의를 거쳐 해당 지원금의 신청 절차에서 평가 도구, 절차 및 수령자 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합니다.

질문:

17. 사회 보장 제도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병인 지원금 수급 심사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 간병인 지원금 수급 자격을 증명하는 데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 b. 귀하는 수급 자격을 입증하는 데 있어 어떤 장벽을 경험하셨는지 저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기타 서비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에서는 폭풍, 홍수, 화재 및 지진과 같은 재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원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으며, 비상 대응의 실행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비상 상황에 따라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18. 간병인으로써 귀하는 긴급 지원이나 비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까?
 - a. 돌봄의 역할로 인해 이러한 긴급 지원을 이용하는 데 어떤 장벽을 경험하십니까?
 - b. 이러한 비상 지원이 귀하와 돌봄 수혜자의 필요를 적절히 충족했습니까? (예를 들어, 비상 대피 지점에 휠체어 사용이 가능했습니까? 신경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예, 자폐증, 집중장애)을 위한 조용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까?)
 - c. 경험하신 바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귀하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19.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참고문헌

- 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2)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ABS website, accessed 4 July 2024, <https://www.abs.gov.au/statistics/health/disability/disability-ageing-and-carers-australia-summary-findings/2022>
- 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8)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ABS website, accessed 12 July 2023. <https://www.abs.gov.au/statistics/health/disability/disability-ageing-and-carers-australia-summary-findings/latest-release#carers>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2-base---2071, *Population Projections, Australia*, ABS, viewed 4 April 2024,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population-projections-australia/latest-release>.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1, *Population and Housing*, ABS website, accessed 11 July 2023.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4, *Labour Force, Australia*, ABS, viewed 4 April 2024, <https://www.abs.gov.au/statistics/labour/employment-and-unemployment/labour-force-australia/latest-release>
- AIHW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nd NIAA (National Indigenous Australians Agency) (2023) 'Health Status and Outcomes: 1.14 Disability',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Health Performance Framework*, AIHW and NIAA, Australian Government, accessed 11 July 2023.
- Carers NSW (2023) 2022 National Carer Survey: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Carers [PDF 138.82KB], fact sheet, accessed 11 July 2023.
- Deloitte Access Economics (2020) [The Value of Informal Care in 2020](#), *Carers Australia*, accessed 4 April 2024.
- First Peoples Disability Network Australia (FPDN) (2023) [Disability Sector Strengthening Plan](#), closingthegap.gov.au
- Hill T, Cass B, Newton B and Valentine K (2012) [Indigenous Carers](#),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Standing Committee on Social Policy and Legal Affairs (27 March 2024) *Recognising, valuing and supporting unpaid carers*, [Recognising, valuing and supporting unpaid carers – Parliament of Australia \(aph.gov.au\)](#)
- LoGiudice D, Josif CM, Malay R, Smith K, Hyde Z, Haswell M, Lindemann MA, Etherton-Ber C, Atkinson D, Bessarab D, Flicker L (2021) 'The Well-being of Carers of Older Aboriginal People Living in the Kimberley Region of Remote Western Australia: Empowerment, Depression, and Carer Burden',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40(7), 693-702, doi: 10.1177/07334648198986.
- Mohanty I, Niyongsenga, T 'Young Carers and their mental health', *The Lancet Regional Health Western Pacific*, Volume 16, 100304, DOI: <https://doi.org/10.1016/j.lanwpc.2021.100304>.
- Schirmer, Mylek and Miranti (2022) [Carer Wellbeing Survey: Full Data Report](#), Carers Australia, accessed 12 July 2023.